시민화합 민속축제 전주단오 행사 성료

단오 물맞이 프로그램 확대… 예년보다 더욱 많은 관람객들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17 전주단오' 행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시민과 관광객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단오, 시민화합 민속축제로 성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17 전주단오' 행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시민과 관광객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를 슬로건으로 전주덕진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대표프로그램인 단오 물맞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대돼 예년보다 더욱 많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전주단오 이야기는 교육적 효과와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며, 부스 설치를 최소화하고 전주덕진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행사장 분위기는 앞으로 전주단오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윷놀이 등 단오 민속놀이 겨루기는 참여한 33개동 주민들이 복장을 준비하고 대회 전 연습하는 등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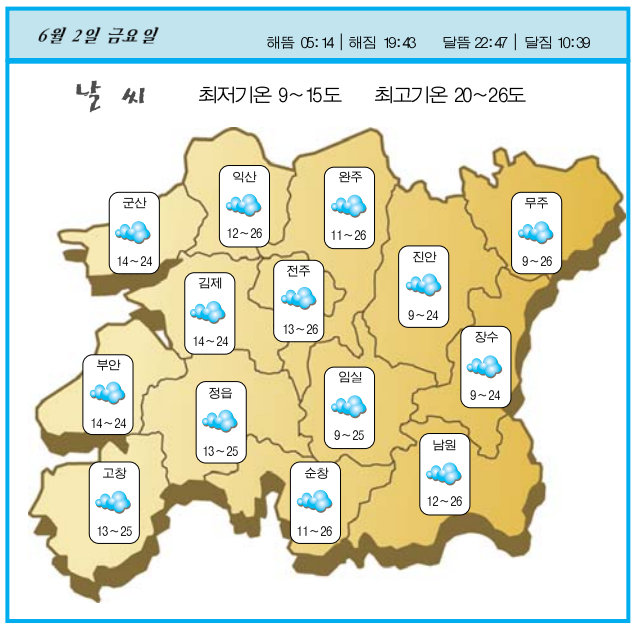
아울러 대회 당일 각 동의 열띤 응원단과 주변에 모인 많은 관람객들이 하나가 돼 함께 응원하고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흥겨운 대동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 기간 중에는 세계민속춤 페스티벌의 열띤 경연과 26개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밖에, 올해 전주단오에서 시민들은 덕진공원을 산책하며 한지를 활용한 단오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3D워터스크린 뮤지컬 공연도 함께 즐기는 등 풍성한 단오행사를 만끽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전주단오는 정체성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가 녹아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인 단오를 기억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전주시의 대표 행사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사람 중심 복지공동체 정착

전주시, 동네기획단 역량 강화한다

전주시가 사람중심의 전주형 복지공동체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동네기획단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1일 2017년도 전주형 동네복지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33개동 동네기획단 100명과 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전주형 동네복지는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람과 마을중심의 동네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정책인 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계시켜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위원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을 방문해 복지공동체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전주형 동네복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동네기획단의 역할과 활동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구 상무2동을 방문해 서기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함께하는 동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우수사례-공유와 상생의 살맛나는 쌍쌍일촌'을 주제로 한 상무2동 협의체가 추진해온 마을과 이웃을 알기 위한 전수조사, 이음지기 문안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愛카네이션, 다정다감 행복한 밥상, 둘이 하나 되는 날 등의 사업 우수사례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올해 동네복지 교육의 비전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복지'로 정하고, 사업 대상자인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적인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시는 이번 벤치마킹에 이어 6월 중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 협의체 간 협약 체결,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동네기획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문제 등 의제 발굴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조직화된 힘을 갖추고 동네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동네기획단 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도교육청, 오늘 순직 교육자 추모제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이 오늘 오전 10시 전북교육문화회관 안에 있는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갖는다.

이날 순직 교육자 추모제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장명식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장을 비롯해 순직교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추모제는 김 교육감 추념사와 장 교육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회장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31회째를 맞는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교직에 헌신하다 순직한 교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스승 공경·제자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도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거행돼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3학년 26명 취업 협약 완료

전북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고인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교장 윤홍진)는 2017년 중소기업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확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억4760만원,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3400만원 지원금을 받아 자동차정비, 자동차도장, 용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기능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진자동차서비스(주), 정읍자동차보링공업사, ㈜아시아, (유)그린자동차공업사, 남원현대서비스, ㈜남광이앤씨 등 18개 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26명의 학생 취업 협약을 완료하여 3학년 49명중 26명의 학생이 안정적인 취업처가 확정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한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 취업맞춤반 실습훈련 120시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약정된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줄포자동차공고는 2012년, 2015년에 이어서 2016년 취업기능강화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취업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도교육청, 여름철 공무원 복장 간소화 시행

도교육청은 최근들어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각급 기관과 단위학교에 보낸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에 따르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노타이 정장이나 콤비, 니트, 남방 컬러셔츠 등, 하의는 정장바지, 면바지 등을 연중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넥타이는 국회·공청회 등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내·외빈 접견,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원칙적으로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